

성경의 맥을 잡아라 - 10강

2004. 5. 8.

* (창1-11장) 은 성경 66 권을 총괄하는 장임. ♦창조 /타락/세상나 라시작/심판과 구원♦의 과정인데, 이것이 이해가 안되면 , 성경 전체가 의문의 연속의 꼬리를 물게 됨. 2달 동안 성경의 뼈대 (구약 11개의 뼈대)를 말 씀 드렸으니, 이것을 중심으로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통독을 하여 가실 수 있음 . 구약 11 개의 뼈대를 중심으로,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, 구약전체가 틀이 잡히므로, 구약의 모든 것 이 보이기 시작함. 금번 강 의에서는 성경내용 자체의 나열식 소개보다는,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게 되었음 . 진도가 늦더라도 스스로 통독은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.

- 창12 장이 성경 66권 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. (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므로)

1) 아브라함

-
-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, 처음에는 별볼일 없 는 (믿음이 전 혀 없는) 사람 을, 시날평지(바벨탑 쌓던) 현장에서 인류를 흠으시고, (한 사람)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.

가.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(배경)

-
(1)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* 일이 되어가는 진행 경과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, 말씀 으로 이 세상 을 창조하시고,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. -우상장수 (아브라함 의 아버지: 데 라)의 아들 (=죄인)을 부르심. -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제 내 나라 (하나님 나라)를 만드시겠다고 하심.

(2)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

-수동적 사고방식 (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님)

-

a) 하나님 중심 사상 -절대 자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,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시므로,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됨 . (헬라적 사고로 볼 때는 바보임. 왜 본인이 못 움직여? 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냐?)

-내 자유의지로 , 그 하나님 을 붙들고(선택), 쫓아가는 것(=따라가는 것)임. 내 몸이 움직이지만 (공부도 열심히 하고, 남보다 직장 일도 더 열심히 하고♦), 그 하나님을 붙잡고, 그 인도하심을 따라 ,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임 .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창조 의 능력을 받게 되어 세상 사람보다 뛰 어날 수 있음 . 이것이 하나님 의 은혜인줄 깨닫고, 내가 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것임을 고백하는 것임 . (민9/22) 이틀이든지 한달 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 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-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을 따라, 그렇게 따라갈 때 그분의 은혜

로 우리가 살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것임 . 그냥 나가면 열사의 더위로 인해 다 죽는 것임 .

-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천국과 지옥 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님. 어떤 사람이 천당이 보이는데,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? 욕 을 벗고 나면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고 인도되어 가는 것임. (끌려 가는 것) 하나 님께서 휴과 생기로 사람을 지으셔서,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감.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곤 하심. 꿈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.-인도되 어 가는 것임 . (마7/13-14)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.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(13)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(14) -인도하는 자가 있다(= 그러므로 살아 있을 때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따라가는 훈련하라 !!) aa)헬레니즘 : 기원은 그리이스 알렉산더 대 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임. 세계적 전파는 알렉산더대왕 .

-바사왕국 (바벨론, 페르시아)과 헬라 (그리스)가 싸움할 때 , (역사적으로 아시아 가 먼저 유럽 을 공격함, 헬 라(그리스) 가 수세에 몰 려다가,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제압함.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헬라적 사고를 아시아에 전 파하였음. 헬라인에게 신을 믿는 것(히브리적 사고)은 야만인으로 보였던 것.

-인본주의 (능동적 사고 요구): 신의 인간 화를 가져와 그리스 신화가 생겨남. ·예전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여, 사 람(내 몸)이 움직여야 산다고 생각 하여, 하나님 필요 없게 됨. 그러므로 신의 인간화 (신이 사람과 똑같다)라는 그리스 신화가 생겨남. 신을 끌어내려서 보이지않는 신을 인간과 똑같다고 생 각한 바로 그 원리로, 짐승의 인간화를 만들어냄. 이 것이 이습우화 임 -(신= 사람=짐승) 현대판 이습우화를 ◆ 디즈니랜드◆ 에서 볼 수 있음. 사탄은 끊임없이 우 리를 짐승화 하여(욕을 자 극하여, 나를 자극하여), 먹고 마시고 성욕을 느끼게 함. 이렇게 사람을 짐승화 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, 반면에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넣어 주는 것도 사 탄임.

b)느낌/체험중심 vs. 합리적 사고 (냉철한 이성)-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, 느낌이 없으면 읽어 지지 않는 것 임. 우리들의 인생이 여태까지 무엇으로 움직였을까 ? 사람은 냉철한 이성으로 행 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순간적인 충동이나 느낌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임. 예를 들어, 오토바이가 너무 갖고 싶으면, 갖고 싶은 느낌과 충동으 로 행동하게 되는데(흥침), 이러한 인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하니까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임 . 그러한 행동 은 합리적 사 고 (법을 조항)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님. 결혼도 합리적 사 고 로 하였는가? 전적으로 느낌으로 하였음. -그저 저 사람하고 살면 뭔가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 하나로. 합리적 사고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, 실제적으로 인생은 합리적인 것이 아님. 그러나 헬라적 사고의 보급을 한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에 와서 야만인 을 enlightening (계몽)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 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음. (칼이나 ../ 배움이나..)

c)관계중심 vs. 철저한 개인주의

-구약은 합리적 사고로 이야 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 음. 그리고, 나 혼자의 역사 이기보다는, 항상 관계중심으로 족보를 열거하고 있음 . -철저한 개인주의로 살다 보면 나 ,나,나 밖에 없게 되므로, 영원한 고독과 절망으로 빠져 지옥을 경험하게 됨 .

(결론) 세상 에서 배우는 학문이 헬라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므로, 삶 속에서 계속 선

택을 나중심적 사고로 하게 되니까, 결과는 지옥을 체험할 수 밖에 없음 .

(3)목적-인류 최초로 [나]를 벗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, 하나님의 것 으로 채워주신 다음에 (은혜요, 축복임) 이웃에 축복의 통로를 열라고 아브 라함을 부르심.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(義)임.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**◆하나 님 나라와 그 의(義)**임. 무엇을 먹을까 마실 까 그런 것 구하지 말고 , 그것은 이방 인들이 구하는 것임. *하나 님 나라를 구 함: 하나님 만 나고 싶어하는 것.*하나님 나라의 의 (義): 은혜 로 받아 + 대속 (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, 이웃의 궁핍을 채 워주는 것 (= 짐을 지는 것) 나는 손해 보는 것임 (=나를 부인하는 것임) 하나님의 법 (율법,말씀)은 전부 이웃을 지켜주는 것임 (이웃을 사랑하라!) 이 이웃의 짐을 지 라고 하시므로, - 반면에 세상 법은 내 재산과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.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채워주심. 그러므로 내 것 구하지 말고 , 내가 대속할 것을 구하라 !! 내가 이웃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, 그 하나님은 내 가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채 워주시기 시작하심.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. vs. 헬라적 사고는 내 것, 내 것인데, 내 것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겠는가? 세상의 법은 전부 내 것을 지켜주는 것 아닌가?

-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의 (義)를 알게 하시려고 , 갈릴리/사해를 통해서 보여 주심.

a) 허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 에서 새로운 물을 받아서, 엄청난 물을 요단 강으로 (65 만ton) 흘려보냄. 은혜 받고 말 씀 전하고, 사 랑과 축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함.받아서 흘려주는 것 (말씀/사랑/ 은혜/축복을).

b) 갈릴리 밑바닥에서 는 생명 샘이 솟음.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생명 샘이 흘러나옴 . 끊임없이 세 상의식이 씻겨내려감. 밑바닥에서부터 애통함으로 말미암아,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됨. 하나 님의 엄청난 위로는 내가 깨어질 때에 비로서 옴. 말 씀과 기도를 통하여, 내 안 을 끊임없이 씻어내면, 나도 모르게 변하게 됨.

-그러면 어디까지 변화 (성화)해야 하는가? 하나 님이 안 가르 쳐주심. 우리는 연약하므로, 행위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음 . 우리가 애쓰는 모습, 하나 님 은 그것을 받 으심.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연약할 수밖에 없음. 그러나, 예수님 그분만은 십자가에서 **◆다 이루었다◆**고 하심. (엡1/9)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 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하신 것이니

·그분의 형상을 닮아 ,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육의 에너지로 가 득찬 자아를 깨트리고, 물로(말씀의 생명수) 씻어내면,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감.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,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, 그 영광의 모습으로, 나도 덧입혀지는 것임. 그러나 , 어디까지 했을 때 glorify (영화)시켜 주실지는 모름. 주님이 변화 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임. 그러나 소망이 부끄 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 어지게 됨이니◆ (롬5/5) -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을 덧입는 것 , 이것이 하나 님의 무한하신 은혜임.

c) 생명이 있다 .d) 주변이 아름답다

·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서 , 자꾸 전해주면 , 그 사람의 주변이 아름다워

짐 . 나를 주장하 지 않는 그릇 은 귀한 그릇 (고후2/21)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됨. 사도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,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,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, 어떻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함.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함 .

aa) 받기만 한다 > 가라앉는다 (쓴 뿌리) = 세상사 람의 인격· 더러운 것, 음행, 시기, 질투, 남을 속이는 말 등(갈5/19 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) 이 속에 다 있는데, 자신의 인격으로 이런 것들을 참아내서 밑으로 계속 가라앉히는 것이 소위 인격자들의 수행을 통한 선행의 결과임. 마치 여물통처럼, 겉과 위에는 맑은데, 밑과 속에는 온갖 것이 더럽게 엉켜있음. 불교나 도 닦는 것을 보면 , 계속 가라앉힘 . (하나님께 고 백해서, 생명 샘으로 씻어내는 것-즉, 인격의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 ♦) 여물통을 휘 저어 놓으면, 와장창 밑과 속의 것이 위 로 올라옴. 그 러므로 내가 인격을 가지고 가라앉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.. 참기만 하면 안됨. 내가 참는다는 것은 가라앉히고 , 가라앉히고 하여 , 쓴 뿌리만 자라게 하는 것임-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변 화되어야 하는 것임.cc) 죽 는다 > 주변이 삭막하다..받아 가지고 절대주지 않으면, 점점 죽어감. 나뭇에 없으므로 주변이 삭막하게 되어 , 자폐증,우울 증, 조울증♦초 래.

-
나. 아브라함의 언약

-
*하나님 나라의 선포 (신구약 66권의 시작임 .)

-
1) 민족

2) 영토

3) 임마누엘 (주권)

-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 시겠다고 선포하심. -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almighty하시지만, 이 세상을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, 자그마한 씨 (아브라함)을 선택해서, 25년 간 훈련시켜서 , 내 것 버리게 하시고 , 하나님 나라 의 씨앗으로 만드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, 이때 부터 이방 나라들에 하 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려는 것. 하나님은 혈통을 중시하시고 아브라함/이삭/야곱 3대에 걸쳐 동일한 약속을 주심 . -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임. (long long process)

-
<<한눈으로 보는 성경구조>>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 (온 인류중심 > 이스라엘중심 > 남유다 > 남은 자) 로 축소되어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,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는 신약시대에는 (12사도 < 초대교회 < 열방의 교회 < 온 인류)로 넓혀 가심.

*성경은 흐 름을 따라 읽으면 되는데,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임 .

다. [나]를 벗게 하시는 과정 (창12-23장) 아브라함의 생애

-
1) 본토 친척 아비 집 버려라 > 떠나라 -(히11/8)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-순종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됨. (주의 인도하심 따라, 주의 인도하심 따라, 어디든지 주를 따라♦.) 계속 간섭하시면서,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, 이렇게 해라 하심 . 버리라고 할 때 버리면 엄청난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, 어차피 질 십자가 가라면, 자원해서 집시다!!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 지게 될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임. 주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좋음. (재산과 지위가 너무 많으면 순종하기 힘들.) ·믿음으로 순종하여, 본토, 친척, 아비 집 버린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임. (예: 언더우드, 아펜젤러) 언더우드박사 한 분이 본토친척아비 집을 버린 헌신이, 한국에 복음을 전파 하게 된 계기로, 오늘날 한국을 1000만 성도를 지닌 나라로 변화시켰음.

-
(창12/6)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(Morae)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무도 없었으면, 내 땅인데,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임 .

(창12/1)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♦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 분은 하나님이구나, 라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, ♦ 순종하겠습니다♦ 라고 고백하는 순간, 놀라운 평화(shalom) 을 얻게 됨. 이렇게 계속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임 .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심 .

(창12/7)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,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.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-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임.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, 은혜주실 때 , 응답하는 사람,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,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 드리게 됨.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, 벨엘과 아 이사이에 또 단을 쌓음. 하나님께 응답 드리면 (하나님께 예배 드리면) 자꾸 하나님께서 만나주심.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축복 받는 것임.

-
2) 애굽땅으로 진입

-
(창12/10)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 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갔더니, 아무 것도 없었음.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,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셔서, 잘 믿어 보려고 했더니, 기근이 옴 (못 먹고 굶주림.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♦.)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. 진짜 내 것 버릴 때,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시는 것임. (이유)는 나를 낮추고, 나를 겸손하게 하고,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, 내 것을 진짜로 비우면, 하나님의 것으로 엄청나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임.

-애굽땅에 우거하려 하여 - 얼마나 별볼 일 없는 사람 인가! 아예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함.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♦.

-
-엄청난 재난이 기다림: 아내 를 빼앗김 > 하 나님의 개입

(창12/15)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 하여 들인지라 - 먹고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왕에게 후처 로 주어버림. 내 생각대로 해버림.

-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함.(창 12/17)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(창12/3)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 가 복을 내리 고 너를 저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◆ - 보호하시는 하나님,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! 라고 믿게 만드심. 아브 램은 여기에서 크게 변화됨. (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후에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세 를 갖게 됨)

-
3) 롯과의 결별

(창13/5-6)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(5)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 가 많아서 동 거할 수 없었 음이라.(6)- 내사람 버려라!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 버리라고 하심. 그런데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 (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과의 싸움으로◆)

-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변 화되어 세상과 다를 수 있는가?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줌. (창13/9)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 하면 나는 좌 하리라 -가 먼저 선택하라고 함. (Lottery) (굉장한 믿음임.) (창 13/11)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- 사해 오른쪽 (요단 동편) 소돔과 고모라 땅,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함.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임.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음. 하나님 나라인줄 알고 왔는데, 별 볼일 없었음. 결국 하나님께 엮드리지 않으면 안되었음. 그런데 저쪽을 보 니, 조금만 애를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,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?

·아브라함의 선택 (창13/18)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◆ - 헤브론 땅을 선택 (가나안에서 가장 척박한 땅) 이 땅은 이후 갈렙이 차지한 땅임. 하나님의 사람은, 내 것 비울 때, 진짜로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, 하나님의 엄청난 것으로 축복 을 받게 됨 . 이것이 하 나 님의 축복의 법칙임. * 헤브론 : 사해에서 좌측 유다 광야의 좌측에 위치하여, 유다 왕국의 중심지가 됨.

-
4) 북방 왕들의 침입

-롯과 재산 탈취 (창 14/12)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노력하면 잘될 것 같은데◆ 결국 뺏긴 것임 . 이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, 사탄에게 뺏기는 것 과 마찬가지로.

-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대 속 (창14/14)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 한 자 삼백십팔 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전 애굽에서 죽을 것 같았을 때,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 하며, 롯을 구 하고자

하는 목숨을 거는 일을 함.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는, 본인이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을 목숨을 걸고 대속을 함. 이것이 바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임. (창14/16)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.(창 14/21,23)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. (21)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라 (23)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없음.

*살렘왕, 멜기세덱

-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(내 몸과 피)를 줌: 먹은 자는 한 몸을 이룸. (내 안에 들어와, 함께 먹고 마시고 할 것임.) 그 주님과 내가 하나되게 하겠다는 것임.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를 통해,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, 주님과 한 몸이 되어,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겠다는 고백임.

*예수 믿는다는 것= 십자가의 도

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임. 그러나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가!!

-

-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림

(창14/20)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.

-(히5,6,7장) 멜기세덱장 (히6/20)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. (히7/1)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.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-그 이름을 번역하면 살렘 /살롬=평강의 왕 (아비도 없고, 어머니도 없고, 태어남과 죽음에서 자유로우신 영원한 분이심.) 레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십일조임. 아브라함 자신이 십일조를 받을 사람인데◆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의미.(히 7/7) - (히 5/11)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셨는데, 멜기세덱이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함.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나와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임.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(하나님께서 말씀하심.) (요 8/56)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. (요 8/58)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심.

-

5) 축복을 재확인 (창15장)

-

*두려워하고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엄청난 축복하시기를 원하심.

-(창15/1) 이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(異常)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

람아 두려워 말라. 나는 너의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

-

(1) 자손

·10년이 지난 후, 아브라함이 시무룩하였음 .-(창15/5)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(창15/6)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**◆믿으니◆** 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, 첫번째임. 의(義): 믿음의 방향성으로 의(義)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함. 의의 내용: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하는 것임. 칭의의 구원: 아직 의롭지도 않지만 의롭다고 하는 것임.

(2) 땅

-(창15/7)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(창15/8)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- 증거를 대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함. 그 하나님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(피가 뚝뚝◆) 이것은 당시 중동지방의 큰 계약 의식이었음. (짐승을 쪼개놓고, 그곳으로 지나감.) (창15/17)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나 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고 기 사이로 지나더라- 횃불 (Torch)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상징 : 절대로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해주심.

6) 아브라함의 실수

-네 몸에서 날자라야 라고 하셨으므로 사라가 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잉태함. 그 결과 여종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므로 쫓아냄-(창 16/8)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. 사래의 여종 하갈이 쫓겨나서, 네게브 사막을 헤메고 있을 때, 하나님께서 **◆너 왜 우느냐?◆** 고 하심. (요3/16)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. - 이는 하나님의 은혜임. (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) (창16/11)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.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 이니라. -이스마엘: 이슬람의 근원이 됨. 이들도 너의 자손이다.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들었고 하심. 오늘날 끊임없이 회교권과 유대교의 싸움이 되는 시작이 됨. 아브라함의 실수의 엄청난 대가임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히브리적 사고 | 헬라적 사고 (헬레니즘) |
| a) 하나님 중심 사상 (수동적 사고 요구) | aa)인본(人本) 주의 (능동적 사고 요구) |
| b) 느낌, 체험 중심 | bb)합리적 사고 (냉철한 이성) |
| c) 관계 중심 | cc) 철저한 개인주의 |
| 갈릴리 | 사해 (Dead Sea) |
| a) 받아서 흘러준다. | aa) 받기만 한다 |
| b) 생명 샘이 솟는다 . | bb) 가라앉는다 (쓴 뿌리) = 세상사람의 인격 |
| c) 생명이 있다. | cc) 죽는다 (점점 죽어간다) |
| d) 주변이 아름답다. | dd) 주변이 삭막하다. |